

與 여의도 빅3 바뀐다... 벌써 물밑 신경전

5~8월 원내대표·국회의장·당 대표 순차적으로 교체

6월 지방선거 결과 최대 변수... 안희정 당 대표 출마 관측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여권의 여의도 권력 '빅3'가 차례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입법기관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가 권력 서열 2위이자 '의회 권력'의 최고봉이고, 대표와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민생법안과 개혁 어젠다를 관철시키려면 이들 3인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빅 3' 선거 가운데 가장 먼저 차례가 돌아오는 것은 원내대표 경선이다. 우원식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5월에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지난해 경선 때 우 원내대표에게 아쉽게 패배한 홍영표 원내위원장과 호남 출신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경선을 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원내대표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직후에는 국회의장 경선을 치러야 한다. 민주당의 하반기 제1당 유지 여부가 변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하반기 원구성 여야 협상에 따라 국회의장 선출이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문희상·박병석·이석현 의원 등 민주당 5선 이상 중진들이 물밑에서 벌써 움직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문 진영이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문을 중심으로 한 당청 결속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친문 진영에 대한 견제 심리가 확산, 이변을 점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지방선거 후인 8월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향후 2년간 당을 이끌어갈 새 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당 대표의 경우 오는 2020년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인 만큼 관심이 뜨겁다. 아직

6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벌써 하마평이 돌아다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우선 송영길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일찌감치 움직이고 있으며, 윤호중·이인영 의원의 이름도 후보군 리스트에 오르내린다. 중진급에서도 이석현·김진표 의원 등 다수가 거론되며, 이종걸·노용래 의원의 도전 가능성을 관측도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도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가 출마할 경우, 경선 흥행을 넘어 당내의 역학구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 대표 경선에서도 문씨의 행태가 결정

적 변수로 꼽힌다. 특히, 당내 핵심 세력인 친문 진영이 추미애 대표와 미묘한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당권 경쟁에서 단일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와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등도 경선 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 자리는 호남 중진들이 민주당 내부에 없어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표와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호남의 민심을 반영할 인사들이 누구냐에 주목할 전망이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호남 주자는 송영길, 전해철, 김태년 의원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영철 방남 막아라” 한국당 파주서 집회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방남 반대 집회를 하다 김영철이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극기를 펼치고 행진하며 통일대교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다시 ‘냉각’

北 김영철 방남 놓고 여야 충돌... 민생법안 등 처리 불투명

지난주 가가스로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압초를 만났다.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5일 방남으로 여야가 또다시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기 전선이 풀리지 않을 경우 2월 국회는 사실상 성과없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유동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등 세출법안들과 물관리 일원화법 통과에도 사활을 걸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종 민생법안과 방송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2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다른 주요 법안과 함께 5·18 특별법 통과에도 힘을 쏟았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5·18 특별법(국방위)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법안(보건복지위)은 각각 해당 상임위 문턱은 넘었다.

두 법안 모두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27일 법사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암담한 상황이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핵심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이처럼 마지막 본회의가 소득없이 끝날 것이라 관측 때문에 3월 임시국회 소집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의식해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어떤 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북구청장 출마’ 문인 출판 기념회

광주 북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문인 전 광주시행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시 북구 일곡동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자서전 ‘문인, 도시를 살리다’의 출판기념회에는 5000여명의 축하객들이 몰렸다.

이행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전 더불어민주당 북구갑지역위원장 김기정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했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윤정현 광주시장과 이종걸·박영선·박광은·전혜숙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전했다.

문 전 부시장은 자서전 ‘문인, 도시를 살리다’를 통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북구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 등을 밝혔다.

광역의원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는 깜깜이

정개특위 정수조정 또 실패... 증원 규모 입장차 여전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1주일 앞두고도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 예정자들의 애타고 있다. 지난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에 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은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여전히 핵심 쟁점은 광역의원 증원 규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구 의원이 증가한 부분을 의원정수 조정

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방안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광역의원 증가를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늘려야 하는 정수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는 28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힘든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단 다음달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조정되면 또다시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욱이 지난 3일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선거구 확정에 따라 재공고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출마 예정자는 출마할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또 유권자는 내 지역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구 획정은 이미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 가장 늦은 수준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 내달 선대위원장 복귀

서울시장 출마 결심 굳힌듯

바른미래당의 창당과 함께 백의종군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내달 중순께 바른미래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25일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쪽으로 결심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안다”며 “안 전 대표가 2~3주 안에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 출마선언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출마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들을 만나며 인제 영입에 매진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동구청장 출마’ 강신기 출판기념회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25일 동구 조선태학고 해오름관에서 자신의 책 ‘광주운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화순 빈둥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던 어린 시절부터 행정고시 합격 후 27년간 공직 생활에서 경험했던 일화들을 소개했다. 그는 광주시청에서 5·18 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만의 5·18이 아닌 대한민국의 5·18, 세계의 5·18이 되기 위해서



는 국가기념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일을 비롯해 공직에서 겪었던 다양한 일들을 책에 담았다. 또 책을 통해 강 전 실장은 생산형 도시기반 조성, 청년 창업공간 제공 및 멘토링 지원, 치과·뷰티비트 조성, 안전 자문관제 도입 등을 주요정책 사업으로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